

<B5. 구매력 평가 이론>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제도의 정비
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는 남한의 통
화인 원화와 북한의 통화인 원화 사이의 교환 비
율, 즉 환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이다. 남한과 북한 통화의 환율을 무조건 1:1로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많을 것이므로 좀 더 합리적
인 방법으로 환율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
게 적정 환율을 산정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스웨덴 출
신의 경제학자인 구스타프 카셀이 1918년 제시한
구매력 평가 이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카셀의
주장에 의하면, 환율은 양국 통화의 구매력
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즉, 통화의 가치
가 그 통화의 구매력에 있다면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각 통화의 구매력
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통화의 구매력은 물가 수준에 의하여 나타
낼 수 있으므로 환율은 양국의 물가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이 구매력 평가 이론이다.

구매력 평가 이론은 거래 비용과 무역 장벽이
없다고 가정할 때 각기 다른 시장에 있는 동일한
재화는 어느 곳에서든 동일한 가치의 통화로 표시
되어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로 한다. 이
법칙은 거꾸로 두 국가 간의 구매력이 같아지기 위
해서는 환율이 어느 정도 선이어야 하는가를 알려
주는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달러인 비
누를 한국에서 구매하는 데 1,000원이라면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라면 1달러인 비누의
원화 표시 가격은 1,000원이다. 따라서 비누의 구
매 비용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동일하다.

미국에서 1달러인 비누의 한국 가격이 1,000
원일 때 환율이 달러당 800원인 경우를 생각해 보
자. 미국에서 비누를 사는 것이 한국에서 사는 것
보다 200원이나 저렴하다. 미국에서 1달러에 비

누를 사면 원화로는 800원을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비누를 사서 한국에 팔면 200원
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한다. 차익 거래를 하려면 비누 구매를 위한

달러화가 필요하므로 차익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달러화를 매입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
이 많아지면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의 수요가 증가

하므로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차익 거래의 이익은 줄어들다. 환율이
1,000원까지 상승하면 더 이상의 차익 거래는 발
생하지 않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양국 통화의 구매력의 비율은 환율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각국의 물가 수준을 통해 환율을 추산
하는 방법은 물가 수준을 작성하는 방법이 국가마
다 다르다는 점에서, 또한 일물일가의 법칙에 현실
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특
정 상품을 선정하여 그 상품의 가격으로 환율을 산
정한 후에 이를 실제 환율과 비교하는 것인데, 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빅맥 지수를 들 수 있다. 빅맥
지수란 각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파는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 미국 빅맥 가격과 비교한 지수다.
2014년 7월의 빅맥 지수에 의하면 미국의 빅맥 가
격은 4.8달러이고, 한국의 빅맥 가격은 4달러이다.
당시 한국의 빅맥 가격은 원화로 4,100원이었으
며, 미국 달러에 대한 당시 원화의 실제 환율이
1,023.75원이었으므로 미국의 빅맥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면 4,914원이 된다.

원화로 표시된 미국의 빅맥 가격이 한국의 빅맥
가격보다 814원 비싼 이유는 환율이 높기 때문,
즉 원화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1,023.75원에서 854.17원으로 하
락하면 미국과 한국에서의 빅맥 가격은 일치한다.
즉, 구매력 평가에 따른 대미 달러에 대한 원화 환
율은 4,100원을 4.8달러로 나눈 값인 854.17원이
다(소수점 이하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실제 환율
에 의하면, 빅맥 햄버거를 통하여 산정한 구매력
평가 환율, 즉 빅맥 지수를 통해 계산한 환율로 계
산했을 때에 비해 원화가 미국 달러에 대해서 약
20% 저평가된 것 [구매력 평가 환율(854.17원)
을 실제 환율(1,023.75원)로 나눈 값이 0.83이

므로] 이다. 빅맥 지수는 결국 원화가 제값을 받
는지, 제값보다 높게 받는지, 혹은 제값을 못 받는
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 환율은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로서 카
셀에 따르면 이는 구매력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
다.(O.X)

2. 만약 특정 지역에 무역 장벽 혹은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O.X)

3. 미국에서 1달러짜리 비누의 한국 가격이 1000원일 때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라도 미국에서 비누를 사는 것이 유리하다.(O.X)
4. 비누 구매를 위한 달러화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기존의 차익 거래의 이익은 증가한다.(O.X)
5. 미국의 빅맥 가격이 한국의 빅맥 가격보다 싸다면 그것은 원화가 제 값에 비해 저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O.X)
6. 구매력 평가 환율이 실제 환율보다 낮다면 원화가 고평가된 것이다.(O.X)

<B6. 시장 유인 정책>

정부가 특정 경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에는 크게 명령·통제적 정책과 시장 유인적 정책이 있다. 명령·통제적 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이에 따른 기준, 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강제하고 그것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책 대상으로서의 개인이나 집단의 재량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시장 유인적 정책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인을 제시함으로써 피규제자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행태를 선택하게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이 규제 기관이 원하는 방향에 맞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시장 유인적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오염 물질 한 단위당 일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피구세를 들 수 있다.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피구세가 부과된다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배출량에 대해서는 피구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므로 총비용은 오염 저감 비용과 나머지 배출량에 대한 피구세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오염 물질 한

단위를 더 줄이는 데 추가되는 비용인 한계 오염 저감 비용과 피구세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감축량을 결정하게 되면 기업의 총비용은 최소화된다.

경제학자들이 피구세와 같은 시장 유인적 정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명령·통제적 규제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같은 수준의 오염 감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령·통제적 규제는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같은 분량만큼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의무화한다. 그러다 보니 저감 기술이 우수한 기업

은 정부가 지정한 배출량만큼 오염 물질을 줄이는데 적은 비용이 들겠지만, 저감 기술이 떨어지는 기업은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나 피구세가 부과된다면 모든 기업은 피구세와 한계 오염 저감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감축량을 결정하게 되므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각 기업이 들이는 총비용은 최소화된다. 따라서 정부는 똑같은 규제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기업이 ㉠들이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 제도도 이런 점에서 피구세와 같은 시장 유인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 제도란 오염 저감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 정부가 지정한 오염 물질 배출 상한보다 오염 물질을 더 많이 줄인 경우, 다른 기업에게 그만큼의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배출권 거래를 통해 기업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주어진 규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장 유인적 정책은 비용을 절감시킨 사람들에게 보상을 지불하거나 혁신과 기술 개발의 촉진을 자극하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든다. 명령·통제적 규제들,

특히 기술에 기초한 기준들은 규제 대상 집단들이 특정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들거나 더 효율적인 수단을 찾도록 만드는 동기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 유인적 정책

은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 절감 수단을 찾도록 할 뿐만 아니라 최소 규제 조건들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방법을 개발하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보상이 직접적으로 제공된다.

물론 시장 유인적 정책에도 단점은 있다. 시장 유인적 정책은 사전적 규제 수단이 아닌 사후적 규제 수단이기 때문에 규제 효과의 불확실성과 감독 및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시장 유인적 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규제 수단을 적절히 섞어 규제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긍정적 유인만이 시장 유인적 정책에 해당한다.(o.x)
2. 한계 오염 저감 비용이 피구세보다 많아야만 기업의 총비용이 최소화된다.(o.X)
3. 명령 통제적 규제에 비해 시장 유인적 정책은 모든 기업의 배출 분량을 획일화하는 문제가 더 크다.(o.x)

4. 배출권 거래는 정부가 현재 금지하는 정책에 해당한다.(o.x)
5. 특정한 유인 정책을 다른 정책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o.x)
6. 유인 정책의 형성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o.x)

<B7. 비언어적 표현 >

인간의 의사소통은 대부분 언어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인류학자들은 의사소통의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일찍이 주목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의 비언어적 행위들이 언어적 의사소통과 순차적이고 기능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비언어적 행위들은 '반복하거나, 강조하거나 또는 말을 반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언어적 행위들을 예상하게 하거나, 뒤따르거나, 대체하거나, 이와 일치시키기 위해 사용된다'고 가정했다. 인류학자들은 인간은 이와 같은 비언어적 행위의 다양성에 대한 해석을 자기 자신과 다른 문화 속에서 습득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언어적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를 둘러싼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얼굴 표정이다. 에크먼과 프리슨은 뉴기니에서 외부 문화와 단절된 채 살고 있는 부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기니

부족 구성원들의 여섯 가지 감정(기쁨, 슬픔, 분노, 혐오, 두려움, 놀라움)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이 서구인들의 표정들과 ㉠동일했다. 이들은 서구 문화와 접촉이 없었던 뉴기니의 부족 구성원

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서구 사회에서 ㉡통용되는 여섯 가지 감정에 따른 얼굴 표정이 정확하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에크먼과 프리슨은 인간의 기초적인 감정 표현 형태는 동일

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와 같은 가설을 바탕으로 '안면 행위 부호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특정한 감정 표현을 위해 안면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부호화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개발 목적은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분류 방식을 통해 인간의 얼굴

표정과 감정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던 기존의 연구 방식을 지양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에크먼과 프리슨은 언어적 의사소통에서의 비언어적 행위들을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엠블렘(Emblems)'이라는 범주로 이는 비언어적 행위들 중에서 특정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바로 사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예증(illustrators)'이라는 범주인데, 이는 언어와 함께 동반되는 신체적인 행위들로 언어를 강조하거나 언어적 메시지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를 표명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정서 표현(affect displays)' 범주로 얼굴 표정으로 주로 감정 상태나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범주인 '조정자(regulators)'는 말하고 듣는 반복적인 과정을 유지시켜 주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행위들이며, 주로 대면 관계에서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완충제(adaptors)' 범주는 신체 행동들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상호 작용을 더 안락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타인 앞에서 자신을 순응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에크먼과 프리슨의 연구는 인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심화하였지만,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 양식이 발견된 맥락과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라는 과제를 남겨 두었다.

1. 인류학자들은 대부분의 비언어적 행위들이 언어적 행위적 행위와 기능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o.x)
2. 에크먼과 프리슨은 인간의 모든 감정 표현 형태는 동일하다고 주장한다.(o.x)
3. 엠블렘은 전지구인들이 통용하는 의사 소통 방식을 말한다.(o.x)
4.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을 강조하는 데에 쓰인다는 예증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o.x)
5. 에크먼과 프리슨은 비언어적 표현의 발현 맥락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였다.(o.x)
6. 표현과 관련된 맥락을 알지 못한다면, 비언어적 표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o.x)

<정답>

B5. 구매력 평가 이론

O, O, X, X, X

X

B6. 시장 유인적 정책

x, x, x, x, o

x

B7. 비언어적 표현

O, x, x, O, x, O